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29과 전쟁 이야기로 이어져 계시된 교회 역사

[계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다니엘서에 계시된 세상의 역사는 중심이 세상 왕국들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에 대한 것이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과 그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 주위에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행사한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구속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작은 뿔의 출현과 함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업무로 옮겨가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시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참 교회에 대한 사단의 분노와 공격을 중심으로 세상의 장래를 계시하신다. 그것은 선악간의 대 쟁투의 실상이다. 그것이 요한 계시록으로 이어진다. 이제 이 사실을 연구해 보자.

1.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누구와 싸움을 하였는가?

[단7:21]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2. 이 싸움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계12:7-9]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 이 싸움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 곧 사단의 싸움에서 비롯되었다. 용은 사단이요 마귀이며, 에덴동산에서 시조를 꾀던 옛 뱀의 장본인이다. 사단은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였다. 그 도전은 실패하였고, 그는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미가엘(laek;ymi)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인데,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할 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뜻으로 루시퍼의 도전을 차단하는 하나님의 칭호이다. 특히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수행하실 때의 이름이다.

3. 전쟁에 능한 여호와는 누구인가?

[시24:7,8]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8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수5:13-15]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14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와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 여호와와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와야가 그대로 행하니라.

* 이 여호와와 군대장관으로 나타나신 분은 바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마19: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25: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 인자이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러므로 시24:7,8의 영광의 왕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바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다. 미가엘이신 것이다.

* 성경에 미가엘의 이름이 5회 나타나는데, 모두 다투는 장면이다.

[단10:13] 그런데 바사국 군이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단10:21]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뿐이니라.

[단12: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유1:9]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훼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계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 천사장 미가엘 말고 사람 이름 미가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미가엘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천사장으로 소개된 그분을 말하는 것이다.

4. 왜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사14:12-15]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15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렁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 집회의 산은 여호와와 회의 장소이다. 피조물인 루시퍼가 여호와 회의에 좌정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피조물인 자기가 창조주가 되겠다는 주장이다.

[렘23:18] 누가 여호와와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시82:1]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 이 말씀의 계시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회의를 하신다. 이 회의에는 피조물이 참석할 수 없다. 이 회의하는 장소가 북극 집회의 산이다. 피조물인 루시퍼가 얼마나 당돌하고 건방졌는지 이 말씀으로 능히 알 수 있다. 이런 도전으로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으로 끝났다.

5. 성경은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말했는가?

[삿5:20]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 시스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밑에 있는 군대장관이다. “시스라”의 뜻은 “전투 정렬”이다. 즉 싸움을 위하여 정렬하는 것을 뜻한다. 사단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정렬한 사실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데 이스라엘을 치고 괴롭게 하는 야빈과 시스라의 짓이 바로 루시퍼의 전투정렬과 흡사하다는 비유라고 생각된다. 야빈은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는 뜻이다. 감찰하시는 여호와, 즉 자세히 살피는 여호와라는 뜻이다. 루시퍼가 지향한 상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표상은 루시퍼의 반역을 아주 잘 나타낸다. 루시퍼는 자기를 여호와와 동등하다고 주장하여 전투정렬을 하였다.

[계12:3,4]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4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 이것이 별들의 전쟁이라고 표현되었다.

6. 루시퍼는 처음부터 땅으로 쫓겨났는가?

[유1:13]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 루시퍼와 그를 동조한 천사들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을 때 온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별들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발붙일 곳이 없었다. 우주의 어느 세계도 창조주를 대적한 루시퍼를 환영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이 지구가 창조되자 쥘쥘하게 지구로 들어온 것이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다(롬5:12).

* 어떤 사람들은 창1:2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말씀 중에 “깊음”이라는 말인 “테홈(!/hT)”)을 LXX에서 “아뷔소스(ἄβυσσος)”라고 번역한 것을 기초로 하여 현재의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루시퍼와 그의 추종 천사들을 가둔 상태라고 주장한다. 계20:3에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었다고 했는데, 무저갱이 헬라어로 아뷔소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지구를 사단의 감옥으로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주에 감옥으로 창조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루시퍼가 사단이 되어 쫓겨나고, 그가 점령한 곳이 감옥이 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 지구의 창조 질서가 변질 된 것이다. 그것은 감옥의 질서인 것이다.

7. 땅으로 쫓겨난 사단은 누구를 공격하는가?

[계12:4,5]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마2:16]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헬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 본 그 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 하늘에서 실패한 루시퍼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였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모든 날 동안 사단은 예수를 공격하였다. 여호와와 신성으로만 계신 그리스도와 전쟁을 일으켜 패배한 루시퍼가 이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공격하여

능히 이길 것이라고 자신하였던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는 또 패배하였다.

8. 이제 사단은 누구와 싸우려고 하는가?

[계12:13]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단7:21]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이 작은 뿔이 루시퍼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알 수 있다. 사단이 된 루시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교회를 핍박한다. 얼마동안 그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9. 예언 상 여자는 무엇을 표상 하는가?

[고후11: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엡5:31]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벧전5:13]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 벧전5:13에 교회라고 번역된 원문은 여자이다.

* 용이 여자를 핍박한다는 말은 사단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말이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인 참 교회가 능히 이런 사태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연구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을 파선하게 된다(딤후 1:18,19).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10. 특히 얼마 동안 핍박이 극심했는가?

[단7:25]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계12:6,14]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 이백 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마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24:21,22]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 예수께서 다니엘의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 바로 이 작은 뿔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교회에 자리를 잡을 것을 경고한 것이다. 루시퍼는 하늘에서 집회의 산에 좌정하는 일에 실패하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에 자기 보좌를 차리고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으려고 한 것이다.

[살후2:3,4]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11. 이 때 누가 이 여자를 도와서 꺾박을 면하게 하였는가?

[계12:15]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 입으로 토하는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권력형 꺾박이다.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체벌을 가하는 것이다. 매매 못하게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이론적 꺾박이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해석과 주장으로 참 진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위장의 꺾박이다. 첫째와 유사한 것이지만, 유사교회를 만들어서 혼동하게 하는 방법이다.

12 여자를 도운 땅은 누구인가?

[계13: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국을 나타낸다. 미국은 어린양 곧 예수정신으로 시작한 나라로서 왕권과 교권이 없이 시작한 나라이다.

[17:15]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앗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 바다는 여러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을 상징한다. 그런데 계13:1의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다. 나라들과 민족들과 방언들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세력이다. 그러나 13:11의 짐승은 땅에서 나온다. 1절의 짐승과 나타나는 자리가 다르다. 여기서 땅은 바다의 대개념(對概念)이다. 그러므로 나라들과 백성들과 방언들이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곳에서 일어나는 나라를 표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신으로 일어나서 용과 같은 권세를 행하면서 세상을 다 따르게 하는 한 나라를 표상한다. 지구의 나라들을 살펴보면 미국 외에 해당되는 나라가 없다. 이 나라는 온 세상을 주장하는 세력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다.

[계13:14-17]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3.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

[계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 하나님의 계명은 잘 알고 있다. 계11:19에서 하늘의 장막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는데, 그 안에는 당연히 십계명이 들어있다. 그리고 계12:17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언약궤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십계명의 정신을 수행하는 사

람들이다.

* 예수 증거는 계19:10에 대언의 영이라고 했다. 구역에는 예언의 신이라고 번역되었는데, “토프뉴마 테스 프로페테이아스(τὸ πνεῦμα τῆς προφητείας.)”이다. 요즘 번역은 예언의 영이라고 번역하였다. 이 은사를 받을 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은사 중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다. 그들의 등불은 꺼지게 되고 신랑을 맞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마22:1-10)

[고전1:5-7]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6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이 남은 자손의 표가 된다.

14.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계12:16]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 여자의 남은 자손은 1260일간의 핍박 후에 교회를 도와 핍박을 피하게 한 미국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는 오직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뿐이다.

* 성경은 이와 같이 사단이 된 루시퍼와 하나님의 전쟁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과 그와 연합한 대리자인 타락한 교회의 전쟁으로 진행될 것을 미리 자세히 가르쳐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을 자세히 연구하여 이 시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참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다.